

방제법

❖ 묘포장에서는 거름을 잘 주서 땅 철저히 관리하고, 병든 잎을 모아서 태우거나 땅속에 묻는다. 숲에서는 밑에 가지 부위의 잎에 발생이 심하므로 풀깎기와 가지치기를 실시하여 통풍을 좋게 한다. 살균제(베노밀수화제 1,000배액, 만코제브 수화제 600배액)를 살포할 경우에는 6월 중순~8월 중순의 자낭포자가 날아가는 시기에 실시한다.

살아숨쉬는 숲,
숲의 생태와 환경을 생각합니다

전북대학교 수목진단센터

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번지
Tel. (063)219-5238 Fax : (063)270-2592
Homepage: <http://treediagnosis.jbnu.ac.kr/>

소나무류 잎떨림병

Needle cast



전북대학교
수목진단센터

소나무류 잎떨림병

학명 : *Lophodermium* spp.

영명 : Needle cast

기주식물 : 소나무류(잣나무, 소나무, 곰솔, 스트로브잣나무, 리기다소나무, 리기테다소나무, 테다소나무)

피해

❖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경기도 양평, 광릉 등의 잣나무림에서 발생이 심하여 항공방제를 실시하였으며, 1990년대 중반 이후 이들 지역에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. 전국의 해안지역 곰솔에서 발생하고 있는 잎떨림병은 **묘포장과 조림지의 어린나무에서 자주 발생**한다. 전 세계의 소나무류에 널리 발생하며, 특히 유럽과 북아메리카에서 피해가 크다. 병든 나무는 급격히 말라 죽지는 않으나 수년간 계속적인 피해를 받으면 생장이 뚜렷하게 떨어진다.



[이병잎과 정상잎 비교]

병징 및 병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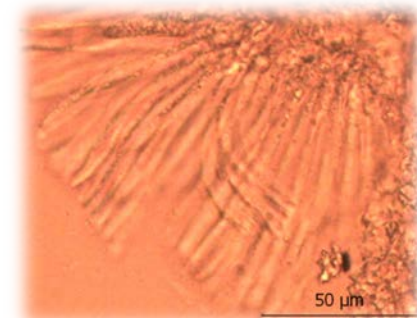
❖ 3~5월에 오래된 잎의 1/3 이상이 적갈색으로 변하며 대량으로 떨어진다. 병세가 심하면 병든 잎은 다 떨어지고 새순만 남은 앙상한 모습을 보인다. 땅에 떨어진 병든 낙엽에서는 6~7월에 자낭반이 형성되고, 7~9월에 비를 맞으면 자낭포자가 날아서 흩어져 새잎을 침해한다.



[고사된 침엽에 나타난 자낭반]

병원균

❖ 병원균 *Lophodermium* spp.는 곰팡이의 일종으로 자낭균류에 속한다. 종류는 20여 종에 이르는 데, 대부분 병원성이 매우 약하거나 죽은 잎에 서식하는 부생균이고, *L. seditiosum*만 유일하게 소나무류의 당년생 잎을 감염하는 병원성이 있다.



[*Lophodermium* spp. 자낭]